

기고

최근 급증한 청첩장 스미싱 주의보

최근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청첩장 링크를 보내는 청첩장 스미싱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URL을 누른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청첩장 스미싱은 URL이 포함된 청첩장 문자를 전송하고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조종 등으로 당사자도 모르게 금융거래를 시도하여 피해를 준다.

#청첩장 스미싱의 주요 특징

1. 지인 사칭 : 발신번호를 수신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실제 지인이 보낸 문자로 오인하기 쉽다.
2. 악성 앱 설치 유도 :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를 탈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여 금융 피해를 입힌다.
3. 악성 코드 유포 : 청첩장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4. 지인 연락처 활용 :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이용한 2차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청첩장 스미싱 예방법

1. 출처 확인하기
  - 지인에게서 왔더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청첩장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지인에게 문자를 받으면 직접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2. 스마트폰 보안 강화
  - 악성 앱이 합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에서 '알수 없는 출처 차단',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하여 악성앱과 원격제어 앱을 검사하고 문제되는 어플이 발견된다면 즉시 삭제한다.
3. 서비스 가입하기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되는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앱세이프' 홈페이지에서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통신사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으로 온라인상 비대면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은 순간적인 판단착오 혹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문자 메시지를 통해 URL을 클릭했다면, 비행기모드 설정 후 모바일 백신(알약, v3 등)으로 악성앱 설치 파일(.apk) 삭제하고,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 감염된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112나 118, 전가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김가영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를 통해 URL을 클릭했다면, 비행기모드 설정 후 모바일 백신(알약, v3 등)으로 악성앱 설치 파일(.apk) 삭제하고,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 감염된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112나 118, 전가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김가영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정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제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년 157,000원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떠나가는 봄 그리고 여름

그런데 지금 그 봄날이 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짙푸른 뒷동산에서 피고 지는데도. 옷매무새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슬픈 것이다. 이제 그날의 흔적들은 사라져 가고 있다. 그 대신 울음처럼 한 녹음이 다가와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봄날에 대한 미련은 훌훌 털어버리라는 부탁의 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숲속의 새들은 더 큰 소리로 노래하고 졸졸거리던 시냇물도 쿵쾅거리며 흐르는가 보다.

이제 지난 봄날의 아름다움은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미 저 하늘의 태양은 더욱 강한 힘으로 화력을 뽐어

내기 시작했고 삼라만상도 여기저기서 신선한 노동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래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봄날의 향수에만 얽매 일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지난봄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 들녘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고 과수원에서는 각종 작물들이 열심히 자연과 품앗이를 하고 있다. 그 래야 겨울에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힘든 노동을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역시 그것을 견뎌 낼 수 있게 한 지난 봄날이 있었기 때문

이다. 그날의 화려함이 그 어떤 고통도 극기하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에는 지지도록 일하고 밤이 되면 달콤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다시 아름다운 봄날을 만날 꿈을 꾸면서,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계절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여름의 시작인 6월은 중요하다. 이같이 여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계절이다.

살의 의욕을 주는 계절이다. 그래서 목동 앞에 펼쳐진 푸른 초원과 같은 계절이 바로 여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지난날의 추억을 자랑 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풍요와 건강을 획득한 채로 사랑하는 입과 다시 아름다운 상봉을 위해서, 그래서 온갖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고 떠나간 지난 봄날은 참으로 위대했던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이별은 심장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었지만, 그래서 떠나가는 봄과 곁에서 자라가는 초여름은 진정한 빛인가 보다. 아! 이제는 봄 사랑을 가슴에 묻고 여름을 가꿔 갈 수 있을 것 같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교통사고 현장을 가보면 과속 주행 중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운전대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떨어진 물건을 줄기 위해 몸을 숙이는 행위, 운전 중 전화 통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는 행위 등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각종 행동 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습관 실천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화재 현장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가스레인지에 조리기구를 올려놓고 이웃집에 잠깐 갔다가 조리 사실을 깜박 잊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접속시켜 과부하로 불이 난 경우, 튀김을 위해 식용유가 담긴 냄비에 불을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 발화가 일어난 경우,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질에 착화·발화된 경우 등 다양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통사고나 화재는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안전습관만 지켜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할 땐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커브길 등에서는 속도를 평소보다 좀 더 줄여야 한다.

또 오직 운전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외출이나 수면 전 전기·가스·난방·전기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잊을 것 같다면 주방이나 출입구 부근에 확인할 목록을 적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에만 집중하는 안전 습관을 들이는 세상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등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거로 생각한다. 고홍소방서 과역 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음력 5월 16일)

48년생 긴지한 표정으로 실연을 막아내자. 60년생 등성등성 살림 부자가 되어간다. 72년생 꼬기가 아닌 새로운 행을 하자. 84년생 꽃과 나비 환상인 만남을 가져보자. 96년생 부시게 감사한 도움을 받아보자.

49년생 심사숙고 결정 고민을 다해버라. 61년생 세상 누구라도 아래로 보여진다. 73년생 불편한 인사에도 자유를 가져보자. 85년생 중형무진 활약 경쟁에서 이겨내라. 97년생 정사로 하지마라. 신토가 우선이다.

50년생 나이는 숫자다. 새로운 도전에 하자. 62년생 아이같은 발상 편만 들어 마땅하다. 74년생 오래했던 결심을 실천에 옮겨보자. 86년생 든든한 뒷받침 날개가 달려간다. 98년생 호자외로움 씩씩하고 강해한다.

51년생 잘못된 방식을 빠르게 고쳐내라. 63년생 여럿 중에 으뜸 보석처럼 빛난다. 75년생 더하려는 욕심 배가 산으로 간다. 87년생 울컥하는 감동을 사전에 담아보자. 99년생 최고라는 자만 회초리를 불태운다.

52년생 조바심 떨쳐내고 참고 인내하자. 64년생 미처 실패지 못한 숙제가 남겨진다. 76년생 순풍에 돛을 알고 앞으로 달려보자. 88년생 실은 소리를 들어도 원력을 가져보자. 100년생 길로 초라해도 실속을 챙겨보자.

53년생 매섭게 가르치고 품으로 안아주자. 65년생 명예와 출세 비단옷이 걸려간다. 77년생 웃음은 번져가고 시름은 잊혀진다. 89년생 쓰라린 실패이름으로 배워보자. 101년생 능숙할 수 없는 기회 물불 가리지 마라.

54년생 차가웠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난다. 66년생 화해는 빠르게 뒤끝 남기지 마라. 78년생 꿈을 이루는 순간 만사가 풀린다. 90년생 기는 날이 강날 가대는 옛날이다. 102년생 공한 쪽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자.

55년생 도울 수 있어도 뒷짐 지고 구경하자. 67년생 결함이 아닐까 되짚어봐야 한다. 79년생 식구라는 울타리 넓고 커져간다. 91년생 웃고 떠드는 사이가, 눈이 들어온다. 103년생 심게 하는 허락 책임으로 변해간다.

56년생 소박한 전치로 기쁨을 대신 하자. 68년생 부질없는 미련 버리고 지워내라. 80년생 스쳐 가는 인연 운명임을 알아내라. 92년생 오지 않을 약속 기다림을 포기하자. 104년생 마음을 사로잡는 제안을 들어보자.

57년생 계획에 없는 지출 낭비가 되어간다. 69년생 막연했던 고민에 답을 알 수 있다. 81년생 길 위에서 보았던 방향을 끝내보자. 93년생 흉내 내던 습관 진짜가 되어간다. 105년생 성적순이 아니다. 열심히 맘 풀리자.

58년생 짜릿한 행복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70년생 미루고 있던 시작을 재촉해야 한다. 82년생 경험과 지혜로 박수를 받아내라. 94년생 나외서는 안 될 말 모른 척 해야 한다. 106년생 청춘이라 가능한 목표를 가져보자.

47년생 불끈 힘이나는 원인을 들어보자. 59년생 그만하러 인류 복기들여 행복하자. 71년생 서러웠던 기억 무용담이 되어간다. 83년생 잘한다. 맛있다 극찬을 들어보자. 95년생 필요하고 원했던 선물을 받아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